

일제말기 국책의 문학적 수용*

- 이기영의 광산소설을 중심으로 -

조 진 기**

< 목 차 >

- I. 서 론
- II. 일제의 국책과 지하자원 수탈
- III. 총후문학으로서 광산소설
 - 1. 국민개로의 실천과 고통없는 노동
 - 2. 지하자원 수탈과 그 현장
 - 3. 대동아 공영권의 낙관적 전망
- IV. 결 론

<Abstract>

The Literary Acceptance of the National Policy
at the End of Japanese Imperialism

Cho, Jin-Ki

Ki-Young Lee's ■■■Dong Chun Hong(東天紅)■■■ and ■■■A Miners Village(鑛山村)■■■ are novels written for propagandizing Japanese national policies at the end of Japanese imperialism. These novels written after the writer himself made a declaration of a new systematic Literature, accept the exploitation of mineral resources by Japanese imperialism without any criticism.

Japan happened to need lots of underground resources to produce goods for the Chinese-Japanese War, which it brought on in 1937. To solve the

* 이 글은 경남대학교 연구비지원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

** 경남대학교 인문학부 교수

problems, Japan forced exploitation of Korean underground resources aggressively. As a result, many Korean workers were mobilized as miners. Furthermore, Japan forced the entire nation to join in productive activities. On the other hand, Japan emphasized on moral education to infuse militarism of Japan Imperialism, and forced to speak in Japanese under 'One Day One Language' Movement. The ultimate purpose of those national policies is to make the people of Chosun into the subjects of Japanese Empire(皇國臣民化) through a slogan of "Japan and Chosun are the one"(內鮮一體).

Japanese imperialism enforced national policy literature to propagandize national policies. Especially, it is a novel of production (生産小説) to encourage production of goods to conduct the war. A Novel of mining(鑛山小説) is one of novels of productions.

Ki-Young Lee's ■■■Dong Chun Hong■■■ and ■■■A Miners Village■■■ are just novels dealing with exploitation of underground resourced by Japanese imperialism. Especially, in ■■■Dong Chun Hong■■■, the writer showed his firm belief that Japan will be the center of Asia near future, and he claimed the validity of the East Asia War(大東亞戰爭) in ■■■A Miners Village■■■. Thus, Ki-Young Lee's novels in this period did not show his critical views on reality as before, but only represented his weak-mindedness to go with the tide,

I. 서론

일제말기(1937-1945) 소설을 문제시할 때 가장 중심 되는 문제는 일제의 강요된 국책에 대하여 작가는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 하는 점이 될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제말기란 중일전쟁의 발발(1937)과 함께 모든 활동이 전쟁 수행을 위해 희생되어야 했고, 동시에 문학에 있어서도 전시 국책에 따

른 국책문학¹⁾이 강요되던 시기였다. 그러므로 이 시기 문학은 어떤 의미에서 작가가 의식했던, 의식하지 않았던 정치적 선택의 문제와 관련되지 않을 수 없다. 그 결과 이 시기 문학은 어빙 하우(Irving Howe)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정치적인 이념이나 정치적인 환경이 전 소설에 걸쳐 지배적이라고 여길 수 있는 소설, 또 이러한 전제로 인해 어떤 근본적인 왜곡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작품 분석에 있어서 어떤 이득을 얻을 가능성마저 가진 소설”²⁾을 정치소설이라 할 때, 이 시기 문학은 정치소설적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다.

사실, ‘정치소설’이란, 정치적 상황이나 정치문제를 소재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소재를 통하여 어떤 정치이념을 비판, 또는 옹호하고 있는 작품을 지칭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소설은 궁극적으로 둘 중의 한 가지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 즉 어떤 이념을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이 희생되어야 한다는 국가주의적 입장을 취함으로써 정치이념을 옹호하거나, 아니면 그와는 달리 개인의 자유와 권익을 무엇보다도 우위에 두는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적 태도를 취함으로써 정치적 이념을 비판하는 태도³⁾를 지니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스타달(Stendhal)의 지적처럼 “문학작품에서 정치는 음악회 중간에 들린 총소리처럼 매우 시끄럽고 속된 것이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것”⁴⁾이며, 특히

1) 戰時下 국책에 따라 농민문학, 대륙문학, 생산문학, 해양문학이라 불려진 문학이 성행하여 이것들을 일괄하여 국책문학이라 한다. 그 선구는 島木健作의 『생활의 탐구』(1937)가 계기가 되었으며, 1937년 당시 農相을 고문으로 島木健作, 和田傳 외 40여명이 중심이 되어 <農民文學懇話會>를 결성, 농업장려라는 국책과 문학을 직결시켜 농민문학의 유행을 촉진시켰다. 이후 1938년에는 高見順, 伊藤整 등에 의한 <大陸開拓懇話會>, 川端康成, 坪田讓治 등에 의한 <소년문예간학회>가 결성되었으며, 이외에도 <해양문학협회>, <경국문예회>, <농산어촌문화협회>, <남양문학간학회>, <조선문인협회>, <일만문예협회> 등 반관반민 문화문예단체가 결성되어 국책에 따른 문학 발전을 촉진했다. (三好行雄(편), ■■■近代文學史必攜■■■, 學燈社, 1989, 114쪽 참조.)

2) 이항재, ■■■소설의 정치학■■■, 문원출판사, 1999, 12쪽 재인용.

3) 김명열, 『정치와 개인』, 유종호(편), ■■■문학과 정치■■■, 민음사, 1980, 224쪽 참조.

4) 이항재, 앞의 책, 11쪽 재인용.

일제의 정책이 전쟁수행을 위해 모든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던 시기이고 보면 이 시기 문학을 어떠한 관점에서 검토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자명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시기 문학을 일제의 국책과 관련짓지 않고 논의하는 것은 문제의 실상을 올바르게 해명하는 길을 원천적으로 외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제는 이미 1920년대의 토지조사를 통하여 농민수탈을 강행하였으며, 1930년대에 이르러서는 북선 개척을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한국의 지하자원을 수탈하는데 집중하기 시작했다. 1931년 말에 부임한 우가키(宇垣)총독은 북선 개척, 南綿北羊, 농가개생을 정책슬로건으로 내걸고 대자본을 유치하였으며, 1930년대 후반기에는 産金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보조금지급과 송전망 및 도로망이 대대적으로 건설⁵⁾되었고, 1937년 중일 전쟁이 발발하자 군수자원의 조달과 막대한 군수물자 수입에 대한 지불수단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금을 비롯하여 지하자원 개발이 요청되었다. 이러한 시국의 요청에 따라 일본은 <조선산금령>(1937)을 공포하였고, 1938년 5월에는 <조선주요광산물증산령>을 공포하였다⁶⁾.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문학계 또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리하여 1939년 10월에 친일 어용단체인 조선문인보국회가 창설되었으며, 1942년 9월 5일에는 상임간사회를 소집하여 간부를 개선하고 실천요강으로 1) 문단의 국어화 촉진, 2) 문인의 일본적 단련, 3) 작품의 국책협력, 4) 현지의 작가동원 등을 채택하였으며, 작품의 국책협력으로는 일본정신의 작품화, 도의 조선 확립의 의의 탐구, 동아신질서 건설의 인식 철저, 징병제의 취지 철저를 내걸었으며, 선내(鮮內) 증산운동의 현지 조사를 중점 시책으로 제시했다⁷⁾. 이러한 시대적 요청은 작가에게 국책문학을 강요하게 되었으며, 이에 가장 적극적으로 호응한 작가가 이기영⁸⁾이라 할 수 있다.

5) 박기주, 『1930년대 조선 광공업의 기계화와 근로관리 통제』, ■■■경제사학■■■, 제26호, 경제사학회, 1999년 6월, 6-7쪽

6) 한창호, 『일제하의 한국 광공업에 대한 연구』, ■■■일제의 경제침탈사■■■, 294쪽.

7) 임종국, ■■■친일문학론■■■, 평화출판사, 1966. 106쪽.

그리하여 여기에서는 범위를 좁혀 생산소설의 하나로 지하자원 개발을 문체 삼고 있는 이기영의 ‘광산소설’⁹⁾ 『동천홍』과 『광산촌』을 중심으로 일제의 국책을 어떻게 문학적으로 수용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이들 작품에 대한 논의는 이기영을 논의하는 자리에서도 배제되기가 일수이고 다루고 있는 경우¹⁰⁾에도 치밀한 분석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II. 일제의 국책과 지하자원 수탈

일제는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키면서 모든 체제를 전시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그 결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문이 전쟁 수행을 위해 집중되었으며, 군수물자의 제작과 조달을 위해 금을 비롯한 지하자원을 개발하는 일이었다. 이러한 일제의 국책으로서 지하자원 개발은 이미 1931년 우카키(宇垣) 총독이 부임하면서부터 ‘북선 개척’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지하자원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는데, 이는 경제의 군사화를 꾀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다. 일본은 1932년 만주국을 건국하면서 중국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어 마침내 1937년 중국본토에 대한 침략전쟁으로 발전하게 되자 일본경제는 급속도로 전시태세로 강화되는 한편 영·미 각국은 일본에 대한 경제봉쇄를 시작하게

8) 일제말기 이기영의 대부분의 작품은 일제의 국책에 순응하는 문학이라 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이 시기를 대표하는 작품인 ■■대지의 아들■■을 비롯하여 본고에서 다룬 ■■동천홍■■, ■■광산촌■■과 그의 해방전 마지막 작품인 ■■처너지■■가 국책문학이라 할 수 있다. ■■대지의 아들■■의 국책문학적 성격에 대해서는 조진기 『만주개척민소설연구』(■■우리말글■■ 제26집, 2002)를 참조할 것.

9) 광산소설이란 용어는 일본에서 ‘생산소설’의 한 유형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마미야 모스케(間宮茂輔)의 ■■粗鑛■■(1938)을 시작으로 하시모토 에이키치(橋本英吉)의 ■■강도■■, 오시카 다쿠(大鹿卓)의 ■■金山■■, ■■探鑛日記■■ 등 상당수의 작품이 전시 하 지하자원 개발을 독려하는 작품들인데 이들 작품을 ‘광산소설’이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기영의 『동천홍』, 『광산촌』을 일반적인 생산소설과 구별하기 위하여 편의상 광산소설이라 부르고자 한다.

10) 권 유. ■■민촌 이기영의 작가세계■■, 국학자료원, 2002.

된다. 이에 대응하여 일제는 중국에 대한 군사 행동을 확대하게 되고 장기화됨에 따라서 고도 국방국가를 건설¹¹⁾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국방산업의 강화가 요청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광공업 중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그들의 결정적인 약점이었던 지하자원의 결핍을 조선에서 보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이전까지 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광공업이 군수산업에 필요한 광물로 그 비중을 높여가게 되었다¹²⁾. 그리하여 1938년 5월에 조선총독부는 <조선중요광물증산령>을 발표했다. 거기에는 ‘국방산업상 특히 중요성을 가지며 속히 그 증산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될 중요광물’(본령 제1조)을 규정하고 광물의 증산과 약탈에 광분하였다. 그들이 말하는 군수산업에 필요한 광물로는 금, 은, 동, 연, 주석, 안티몬, 수은, 아연, 철, 유화철, 크롬, 망간, 텅스텐, 몰리브덴, 니켈, 코발트, 흑연, 마그네사이트, 사금, 사철(砂鐵) 등 25종의 광물¹³⁾이었다.

한편, 이러한 국가적 필요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수의 광산노동자가 동원되어야 하는데 광산노동자의 동원은 철저한 계획 아래 이루어졌다. 1938년 말 일제는 한국의 노동력을 일제히 조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그들이 동원 가능한 노동력으로 소작농 가운데 노동력 동원이 가능한 비율은 70%로 파악하고 있었으며, 1939년부터 <노무동원계획>을 수립하고 노동력을 강제 동원했다. 일본이 조선에서 노동력 동원 방식을 이른바 모집알선, 특별알선, 징용 등으로 강화해 감에 따라 노동력의 강제동원 성격도 점차 명확해졌다. 여기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동원 형태에 따른 명칭 변경과 관계없이 국가권력에 의한 강제적 동원이라는 노동력 동원정책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고, 더욱 노골화¹⁴⁾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광산에서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동원하는 방법은 주로 남부지역의 농촌 노동력을 대상으로 관에서 알선하는 방법을 이용하거나, 광산주가 직접 허가를 얻어 노무담당자를 파견해서 모집하는 이른바 자

11) 한창호, 앞의 책, 221쪽.

12) 전석담, (김인호역), ■■■근대조선 경제의 진로■■■, 아세아문화사, 2000, 304쪽 참조.

13) 전석담, 위의 책, 304-5쪽

14) 락건홍, ■■■일제의 노동정책과 조선노동자■■■, 신서원, 2001, 93쪽

유모집, 출장모집, 연고모집, 근로보국대¹⁵⁾, 징용 등으로 이루어졌으며¹⁶⁾, 농촌에서 농사일을 하던 사람들에게 광산의 노동은 그들 생리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열악한 설비로 위험성이 높아 관 알선모집은 정착률이 좋지 않으므로 형식에서는 알선 모집이더라도 실제로는 연고자를 찾아 모집하는 연고모집을 선호¹⁷⁾했다. 따라서 일제말기 한국의 농촌은 일제의 노동력 공급원으로 전락했다. 이를테면 1939년부터 1945년까지 군수동원령에 의하여 광산노동자로 징용된 인원은 1939년에 24,279명에서 35,441명, 32,415명, 78,660명, 77,850명, 108,350명으로 증가하여 1945년에는 136,810명에 이르게 되었다¹⁸⁾.

그런데 일제는 단순히 자원의 수탈과 노동력을 확보하는데 머물지 않고, 황국신민화정책을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민족동화를 획책하려고 했다. 그리하여 이미 1935년에는 이른바 ‘心田開發運動’을 전개하여 전시하 황국신민화정책의 원형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일본은 조선에서 ‘심전개발운동’의 목표를 국체관념의 명징, 敬神崇祖의 사상과 신앙심 함양, 보은 감사, 자립의 정신을 양성할 것 등으로 설정하여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조선 민중에 주입¹⁹⁾했는데, 황민화정책의 실질적 목표는 징병을 통해 조선 민중을 전장으로 동원하는 것과 노동력을 동원하여 군수생산력을 증강하는 것이었는데, 근로보국을 병역의 의무와 함께 최고의 도덕으로서 의무와 영예로 규정하고, “노동하지 않는 자는 황국신민이 아니다”라는 구호 아래 국민개로 사상을 고취했다. 그러나 노동통제

15) 조선총독부는 1941년 <근로보국대>를 조직하였는데 그 목적은 공식적으로는 농촌 청장년의 ‘집단적 노동을 바탕으로 한 근로정신의 함양’과 ‘국가봉사의 기운’을 높이는 것이었으나, 주된 목적은 ‘국책사업’ 수행에 필요한 노동력을 동원하는 것이었다. 근로보국대의 임무는 1) ‘국가적 봉사작업’으로 물자공급에 대한 근로작업, 군사원호 근로작업, 군사상 또는 국가적으로 필요한 토목건축 공사장, 농어촌, 공장, 광산 등의 물자증산에 필요한 근로작업, 각종 경비, 2) ‘공공적 봉사작업’으로는 도로 교량의 건설과 수리, 방역 위생에 대한 근로 작업, 3) 노동력 자원의 보급 등이었다. (곽건홍, 앞의 책, 100쪽)

16) 곽건홍, 앞의 책, 97쪽

17) 박기주, 앞의 논문, 28쪽 참조.

18) 김문식, 『일제하의 농업』, ■■■일제의 경제침탈사■■■, 민중서관, 1971, 103쪽 참조.

19) 곽건홍, 217-8쪽 참조.

이데올로기는 ‘皇國勤勞觀’(국가주의적 근로관)으로 표현되었다. 이는 ‘천황’에 대한 충성을 바탕으로 한 황국신민화 바로 그것이었으며, 황국신민으로서의 자각을 기초로 자신의 모든 능력을 투입해서 ‘전장’(공장, 광산)에서 국가에 봉사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 노동통제의 요체였다.²⁰⁾

한편 1940년 <근로신체제확립요강>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규정한 노동이란 개념은 ‘황국민의 봉사활동으로서 황국에 대한 황국민의 책임인 동시에 영예이며, 능률을 최고도로 발휘하고, 질서에 복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황국근로관은 노력동원과 ‘勞資協助主義’를 관철시키는 이데올로기²¹⁾이었다.

이처럼 일제는 물적 자원의 수탈과 동시에 인적 자원에 대해서는 천황제 이데올로기로 순치하기 위하여 생산과 교육이라는 양면정책을 실시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광산노동자의 교육과 함께 그 가족에 대한 교육도 실시²²⁾하였다. 그리고 진정한 황국신민이 되기 위해서는 일본어 해독이 필수조건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1939년 현재 조선총독부 조사에 따르면 일본어를 해독할 수 있는 조선인 비율은 13.9%로 남자 22.1%, 여자 5.6% 이었다. 일본어를 보급한 이유는 징병제 실시에 대비함은 물론 일본으로 동원되는 노동자의 작업 환경 적응을 위한 것이었다. 일본어를 강제로 보급하기 위해 공장, 광산에 강습소(직장국어강습소)를 설치하여, 노동대중에게 ‘一日一語’를 강요했다²³⁾.

그러나 노동의무에 대한 반대급부인 임금은 일본 노동자와 동일한 임금을 주지는 않았다. 조선 노동자의 임금은 전 부문에 걸쳐 일본인에 비하여 낮았지만 특히 광업부문에서 현저한 차이²⁴⁾를 보여 주었으며, 중급 이상의 기술자는 모두 일본인이고 조선인 노동자에게는 기술교육이 허락되지 않았다. 전체

20) 박건홍, 219-220쪽 참조.

21) 박건홍, 앞의 책, 220쪽.

22) 박기주, 앞의 논문, 33쪽 참조.

23) 박건홍, 앞의 책, 211쪽.

24) 광산 노동자의 임금에 대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시멘트공장의 경우를 예시 하면 “1940년 5월 조선 오노다(小野田)시멘트공장 노동자의 1일 평균 임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본 노동자는 평균 2.86원이었고, 조선인은 1.03원이었다.” (박건홍, 앞의 책, 267쪽)고 하여 일본 노동자 임금의 반액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의 29%에 불과한 조선인 기술자도 모두 하급기술자 또는 사무원이었다. 광업부문의 조선인 노동자들은 일제의 민족차별과 저임금 하에서 중노동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이처럼 저임금 속에서 생활하는 광산 노동자에게 그들의 낭비적 생활을 바로잡는다는 명목으로 강제저축을 실시하였다. 조선총독부는 1938년 4월 <조선저축장려위원회>를 조직하고 조선민중에 대한 저축을 장려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실제적 목적은 막대한 군비를 조달하는 방편의 하나인 동시에 노동자의 임금을 인하하는 효과와 함께 노동이동을 방지하는데 일정한 효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1941년 <조선국민저축조합령>을 공포하고, 공장, 광산에 저축조합을 설립하여 노동자에 대한 저축을 조직화·강제화했다²⁵⁾.

문학 또한 이들 국가정책을 뒷받침하는 ‘銃後文學’으로서 국책문학을 강요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 시기 국책문학의 중요한 과제는 군비강화를 위한 생산문학의 제작이었다.

일본에서 생산문학이 제창되게 된 것은 중일전쟁의 발발과 함께 군국주의체제의 정비에 구실을 주어 정치권력이 문화통제를 하면서 비롯되었다. ‘생산문학’은 국책인 ‘생산확충’에 관련하여 이름 붙여진 것으로 생산면을 강조,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쓰여졌다. 이들 생산문학에 의해 그 특수한 분위기나 과정이 보다 전문적이고, 조사된 지식이나 적극적인 생활의 장으로 나가는 점이 지적되어 당시 문학의 적극적 사조가 문학 세계를 개척하려고 하는 새로운 정신과 결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²⁶⁾. 특히 생산문학을 비롯한 국책문학의 선봉에는 프로문학에서 전향한 작가들이 있었다. 이들은 그들의 전향이 위장된 행동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전까지 프로문학을 통하여 목적문학을 창작하였기 때문에 목적문학으로서 국책문학의 창작에 별다른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있었던 것²⁷⁾이다. 이러한 일본 문단의 동향은 그대로 우리 문단에 영향을 주게 되어 최재서에 의하여 제기²⁸⁾되고, 많은 작가들

25) 박건홍, 앞의 책, 296-7쪽 참조.

26) 日本近代文學館(편), ■■■日本近代文學事典■■■,(제4권), 講談社, 1977, 249쪽 참조.

27) 三好行雄(편), 앞의 책, 114쪽 참조.

이 이를 문학적으로 실천하게 되었다.

Ⅲ. 총후문학으로서 광산소설

1. 國民皆勞의 실천과 고통없는 노동

■■東天紅■■은 ■■춘추■■ 제13부터 제25호까지 연재(1942. 2. - 1943. 3)된 작품으로 1943년 조선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간행되었고, ■■광산촌■■은 처음 ■■매일신보■■(1943. 9.23. - 11. 2.)에 연재된 작품으로 1944년에 성문당서점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이들 작품은 1941년에 작가 스스로 “신체제에 대한 이론을 공부하고 싶다. 동시에 이론을 체득하는 대로 이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새 인간형을 구상적으로 창조하고 싶다”²⁹⁾고 자신의 작가적 계획을 밝힌 이후 의식적으로 신체제 하의 새로운 인간형을 창조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동천홍■■은 45개의 장으로 이루어진 장편소설로 일본 유학까지 마친 주인공이 새로운 시대에 건전한 생활인이 될 목적으로 광산의 노동 현장으로 가는 장일훈이란 인물의 시혜자적 삶과 선구자적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중요한 서사를 이룬다. 그 하나는 가난으로 인하여 술집으로 팔려 가는 15세 소녀 선옥(본명 금남)을 어려운 처지에서 구출하고 잘 가르쳐 시국에 맞는 훌륭한 인간을 만드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나태와 타락에 빠져있는 광부들에게 황국근로관을 심어주어 황국신민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도록 계몽하고 지도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광산촌■■ 역시 중학교정도를 마친 주인공 형규가 광산징용에 자원하여 과학 결전에 필요한 특수광물의 생산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황국신민의 사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귀향하는 이야기다.

28) 최재서, 『모던문예사전』, ■■인문평론■■, 1939.

29) 이기영, 『新體制下의 余의 文學活動 方針』, ■■삼천리■■, 1941. 1. (현대사), 473쪽.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들 작품에서 보여지는 주인공의 현실인식과 그 의미를 검토하고자 한다.

■■■동천홍■■■은 주인공 장일훈이 옥림광산으로 윤결이란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것으로 시작된다. 가는 도중 그는 강원도의 자연풍광에 감탄하며 여유로운 여행객의 기분을 만끽한다. 그리하여 광산에 일찍 도착할 필요가 없어 부처당(佛堂里) 주막에서 하룻밤 자고 가려고 한다. 거기에서 그는 술집 작부로 팔려 가는 15세의 선옥을 만나게 되고, 그가 팔려 가는 것에 양탈을 부리고 마침내 밤중에 도망을 가다가 술집주인 백춘호에게 잡혀오는 것을 보고 연민의 정을 느낀다. 그리고 딸을 팔아먹는 부모의 행위를 ‘개, 돼지짓’ 썸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마침내 술집주인 백춘호에게 선옥을 산 금액(2백 원)을 되돌려 주고 선옥을 집으로 돌려보낸다. 여기에서 주인공은 가난에 대한 근본적 문제의식이 없이 돈 많은 휴머니스트의 동정심으로 문제를 미봉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는 “자기는 선옥을 구해낸 대신 새로 다른 여자를 불행케 만드는 것이 아닐까? 춘호는 그 돈으로 다시 다른 여자를 사러 갈 것이다. 그 때 그 여자는 선옥이 보다는 더 불쌍한 계집애가 된다면 어찌할 것인가?”³⁰⁾하고 고민하지만 자신의 행동이 “남의 절박한 사정을 참아 그냥 보지 못하는” 성격 탓으로 돌려버리고 있다. 이 점은 이후 윤결과의 논쟁으로까지 확대되지만 주인공은 농촌의 가난을 제도적 모순으로 파악하지 않고 개인이 지니는 동정심으로 해소하고 만다.

사실 주인공 일훈은 부유한 백부와 목재상을 하는 부친으로부터 소학교를 마치자 장가들 것을 강요받고 내지로 가서 신문배달, 공장 노동자 생활을 하며 대학 예과를 졸업한 지식인이다. 그러한 그가 광산으로 가게 된 것은 자신을 포함하여 “도시인들의 허위에 가득찬 삶”과 “저 혼자 잘살려고 이윤을 추구하기에 여념이 없는” 사람들에게 대한 반발에서 비롯되었다. 그리하여 “국가와 사회를 위하는 제이세 국민으로서의 자각”(79쪽)을 하게 되었으며, “머리로만 살려고 하는 불구자적 생활태도”를 버리고 “생산지대”를 찾아가서 건설한 국민이 되려고 한다. 이러한 시대 인식은 다름 아닌 일제의 국책에 영합하려

30) 이기영, ■■■동천홍■■■, 조선출판사, 1943, 43쪽.

는 태도에 다름 아니다. 그 결과 그는 일체의 과거를 부정하게 되는데, 옥림광산 역시 광산을 발견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권모술수가 판을 치던 곳으로 그려지고 있다. 최초 광맥을 발견한 김사문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애쓰다가 조만용, 박준대와 동업하기로 하고 광산을 운영하지만 이들은 김사문을 축출하기 위하여 간계를 꾸미고 이에 반발한 김사문이 일본인 광산업자 고산(高山)의 신임을 받고 있는 윤걸의 주선으로 고산씨에게 넘어가면서 비로소 광산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이처럼 옥림광산의 내력을 통하여 과거의 광산은 권모술수와 투기의 현장이었다면, 현재의 광산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자원의 생산지임을 대비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새 시대 정신을 보여주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 점은 옥림광산의 실질적 책임자인 윤걸을 만난 일훈이 생산 현장의 노동자로 자원하는데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가 광산일을 해보자 한 것은 단순한 자기 일신의 영달을 꾀하자는 노릇이 아니었다. 보다는 과거의 모순된 생활에서 시대양심을 올바로 붙들고 건실히 살 길을 찾아 몸소 그것을 실천해 보자는 데 그의 이상이 불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으로 그는 자기 한 몸뿐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생활환경을 만드려 보자는 것이 그의 원대한 목적이었다.³¹⁾

여기에서 일훈의 행동은 어떤 의미에서 돌발적인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가 서울을 떠나 윤걸을 만나러 오게 된 것은 노동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활의 활력을 얻기 위한 것이었고, 오는 도중에 선옥을 도와주는 것도 충동적인 행동이었다. 그러한 그가 갑자기 광산노동자가 되어 광부들과 함께 합숙을 하고, 힘든 일을 하자 동료 노동자들은 “무슨 사람이기에 노동을 하면서 저렇게 진국일 수 있으며, 또한 잘두 감내해 간다.”(173쪽)고 이상하게 볼 정도로 고통 없는 노동에 보람과 희열을 느끼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을 천시하는 정생원을 가증스럽게 생각한다. 이러한 장일훈의 성격적 변모는 “섬약한 지식인이 일체의 시책에 동화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정신의 황폐화를 육체적 적응으로 대체하려는 몸짓³²⁾”이라기 보다는 그 반대로 정

31) 이기영, ■■■동천홍■■■, 165-7쪽.

신적 황폐화에 따라 일제의 국책에 별다른 비판적 태도를 갖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수용하려는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작가는 일훈의 행동을 통하여 노동의 신성함과 근면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일제의 국민개로의 국책에 따른 생산소설로서의 성격을 부각시키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처럼 지식인의 노동자화와 함께 노동의 신성함은 ■■■광산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광산촌■■■의 주인공 형규는 글방도령이란 별명처럼 성실한 인물인데, 그는 충청도 산촌 출신으로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강의록으로 중학과정을 마쳤으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 공부를 그만 둔 인물이다. 작년에 광산징용³²⁾에 구장의 권유가 있자 어머니의 만류도 뿌리치고 자원한 인물이다.

■■■어머니, 우리들은 나라를 위하여 병정이 될 몸입니다. 한 두해쯤 광산일을 가는 것이 뭘 그리 대단할 것 있겠어요. 그러구 사람이란 물건이 있어야 하는 건데 우물안 개고리처럼 집안에 있어서만 뽕뽕 돌면 무엇에 쓰겠세요.■■■³⁴⁾

이처럼 ‘나라를 위하여 병정이 될 몸’임에도 불구하고 병정이 되어 전장으로 가지 못하고 “광산에 일개 징용인부로 뽑혀갔지만”(27쪽) 학식이 있고 성실하여 감독의 신임을 받고, 그의 집에 하숙까지 하게 된다. 이후 형규는 “광부생활을 한것 품파리꾼으로밖에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들 대부분이 주색잡기에 빠져 있음에 대하여 안타까워한다. 그러면서 그는 “농사를 지어서 만인의 의식주를 당하기나, 광석을 파내서 공업을 발전케 하거나 직접, 간접으로 국가를 위하는 일”(43쪽)이라는 자각과 함께 광부야말로 “산업전사”이기 때문에 강한 자부심을 갖고 다른 광부에게 직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려고 노력하기에 이른다. 이처럼 시대적 요청에 적극 호응하는 주인공은 처음으로 하는 지하갱도에서의 고된 노동에도 전혀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

32) 권 유, 앞의 책, 159쪽.

33) 조선총독부는 1941년 12월 1일 <국민근로보국협력령>을 공포하고, ‘근로보국대’ 방식의 노동력 동원을 본격화했다. (곽건홍, 앞의 책, 72쪽.)

34) 이기영, 『광산촌』, 성문당서점판, 1943. 26쪽.

고통을 느끼기는커녕 “묘리를 알게되면 그것은 수월하다 할 수 있다. 왜 그러냐 하면 광업이나 공업은 기계를 사용하기 때문”이며, “몇 일 동안은 지긋이 참으며 차차 일에 숙달하기 시작하면 도리혀 긴장한 생활감정과 왕성한 정신력을 얻을 수 있다.”(41쪽)고 주장하는데 이는 농민은 물론 지식인까지 노동 현장에 참여함으로써 국민개로(國民皆勞)의 국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를 지닌다. 특히 광산노동자를 전장에 나가 싸우는 병사와 같은 차원에 둬으로써 황국근로관을 실천하는 황국신민으로서 의무를 다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다.

2. 지하자원의 수탈과 그 현장

지식인 노동자들이 광산에서 하는 일은 1차적으로는 근면하게 지하자원을 채굴하는 일로 나타난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 광산노동자의 의식개혁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게 되는데 이는 노동에 앞선 ‘심전개발운동’으로서 ‘황국근로관’을 심어주기 위한 방편임은 말할 필요가 없다.

■■동천홍■■에서 주인공 일훈은 노동자의 삶이란 “하루 이원 미만”의 품삯으로 “그 날 그 날의 품파리로 겨우 연명하는 사람”(186쪽)이라고 하면서 그 원인을 낮은 임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낭비와 소비가 미풍으로 되어 있는 그들의 사회”(187쪽) 탓으로 돌리고 있는데, 이는 다른 측면에서 보면 광부들의 쾌락적 삶은 또 하나의 시대적 절망의 다른 표현³⁵⁾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화적 인물인 일훈은 이러한 광부들의 생활태도를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생산성을 높이고 국책에 따르는 길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리하여 일훈은 그들 노동자 가운데 자신을 따르는 창수와 김사문과 더불어 절주운동, 저축운동, 야학을 통한 국어(일본어)교육을 실시하기로 한다. 특히 힘든 노동을 하는 사람이 절주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함께 하여야 하며, 또 다른 취미생활을 통하여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축운동과 야학이 문제되는데 이 점에 대하여 주인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35) 권 유, 앞의 책, 160쪽.

『그렇습니다. 한 두 사람이 제가꿈 할라면 물론 제대로 지키기가 어렵겠지요. 그렇지만 이렇게 한 곳에 모여있는 여러분이 합심이 되어서 실행한다면 못할 것도 없을 줄 압니다. 가령 저축조합과 같은 형식으로 매달 얼마씩 떼어서 저금을 해두었다가 몇 달 만큼씩 본집으로 부친다든가, 무슨 사고가 생길 때 쓰기로 한다면, 얼마나 유조하겠습니까. -- 그야말로 진함태산으로 모르는 사이에 목돈이 모아질 것입니다.』³⁶⁾

노동자에게 저축이란 매우 필요한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에게 저축이란 또 다른 의미에서 착취의 수단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1938년 일제는 <조선저축장려위원회>를 조직하고 전조선인에게 강제저축을 강요한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1941년에는 이를 더욱 강화하여 <조선국민저축조합령>을 공포하고 공장, 광산에 저축조합을 설립하여 노동자에 대한 저축을 조직화·강제화했던 사실³⁷⁾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광산노동자의 강제저축은 노동이동을 막는 수단으로도 일정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편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저축조합운동은 일제의 국책을 따르는 행위임은 말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저축운동과 함께 펼친 야학을 통한 국어(일본어)보급 운동도 같은 차원에서 검토될 수 있는데 이 점에 대하여 주인공은 다음과 같이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선 국어를 배운다 합시다. 하루에 서너 마디씩만 익히신다 할지라도 일년이면 천 마디 이상을 배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중략)- 만일 여러분이 모다 국어를 해득하신다면, 그것은 여간 큰 유익이 아닐 것입니다. 첫째는 황민으로서 병어리와 귀먹어리를 일시에 면하기도 하시겠지만, 생활상 수입으로도 유익이 많으실 줄 압니다. 어느 일판에 가든지 국어를 모르는 분이 품삯이 적다는 것은 저보다도 여러분이 더 잘 아실테니까요.』³⁸⁾

여기에서 일본어 보급이야말로 ‘내선일체’를 실천하는데 가장 긴요한 일이

36) 이기영, ■■■동천홍■■■, 212쪽.

37) 광건홍, 앞의 책, 296-7쪽 참조.

38) 이기영, ■■■동천홍■■■, 216쪽.

된다. ‘내선일체’의 가장 근본적 문제는 징병제와 일본어보급이었다. 식민지인에게 총을 들게 하는 것을 뜻하는 이 징병제는 식민지 조선의 민중들이 완전한 일본인이 되었다는 확신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안이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징병을 위해서는 일본어 사용은 필수적 사항이었다. 그리하여 1942년 5월 8일 징병제 실시에 앞서 같은 해 5월 1일 국민총력 조선연맹의 주장에 의해 ‘國語全解運動’이 실시되는데 이전의 ‘교실국어’에서 ‘생활국어’운동으로, 다시 ‘국어상용운동’으로 강화되었다. 그런데 일본어 보급운동은 실제로 병력과 노동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조선인을 중점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청년과 남자 45세, 여자 40세 이하의 사람을 집중적으로 교육³⁹⁾시키려 했던 것이다. 이처럼 일본어를 상용화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노동자에게 임금 차별이란 방법을 통하여 일본어 보급을 강제했던 것이다. 이처럼 저축운동과 일본어 보급운동은 당시의 국책으로 추진된 사항이기 때문에 주인공 일훈은 도(道)로부터 표창을 받게 되고 회사에서는 유관기관장을 초청하여 거대한 잔치를 베풀기로 계획하고, 광산주 고산(高山)씨는 일천 원의 위로금을 준다. 그러나 잔치 전날 낙산사고로 일훈이 부상을 당하여 서울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광산촌을 떠난다. 그리고 퇴원하면 다시 농촌으로 들어가 교사가 될 것을 다짐한다. 이처럼 ■■■동천흥■■■은 지식인의 노동자화를 통하여 무지한 노동자에게 새로운 황국신민으로서 황국근로관을 심어주는 동시에 전쟁 수행을 위한 지하자원 개발이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선도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광산촌』에서는 보다 직접적으로 노동력 수탈에 대한 문제가 제시되고 있는데, 작가는 광산촌이 생김으로써 마을에는 돈이 흔해졌고, 여자도 선풍공(選鑛工)으로 일하게 되어 생활수준이 향상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빼어난 산악미를 자랑하는 강원도에 광산이 개발됨으로써 “금번 대동아 공영권의 중요한 광산기지로 약진한 반도광업의 기초를 쌓게되자 격렬한 과학결전을 안 하면 아니 될 특수광물의 생산으로까지 우렁찬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다.”(32쪽)고 주장하여 광산개발이 갖는 역사적 의의를 대동아 공영권을 위

39) 최유리, ■■■일제말기 식민지 지배정책연구■■■, 국학자료원, 1997. 180쪽 참조.

한 전쟁준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일제는 이미 조선의 지하자원을 약탈하기 위하여 명치 35년(1902)부터 반도의 지질조사를 했으며, 조선총독부 지질조사소에서 계속적으로 지하탐사를 했음을 밝히고, 특히 군수물자의 생산에 필수광물인 희유원소광의 발견은 최근이라고 장황하게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각종 희유원소광의 용도를 밝히면서 “희유원소는 무선전신, 라디오 등에도 응용되는데 이미 남방의 결전장에서 그 위력을 발휘하였다 한다.”(37쪽)고 하여 지하자원 수탈의 현장을 거리낌없이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군비를 조달하기 위한 광산노동자의 작업 역시 “항부는 마치 참호를 하고 적진을 돌격하는 제일선 용사와 같다”(40쪽)하여 총후 결전을 독려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일제는 노동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착취하기 위하여 한 달에 한번씩 <증산주간>⁴⁰⁾이란 이름으로 1주일동안 각 작업장을 대상으로 경쟁심과 보상을 통하여 생산을 강행하였는데, 그러한 사정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이 광산에서는 올부터 끝주일로 증산주간을 정해 놓고 각 작업장이 성적을 올리기에 힘을 썼다. 그것은 일종의 경기행사와 같았다. 이렇게 각 부문을 한달 뒤로하여 여러 단체가 제각금 작업에 경쟁을 하게 된다. 그래서 성적이 우수한 단체에게는 상을 주고 그들을 격려하였다. 이와 같은 단체적 경쟁일은 그들에게 비상한 충동을 주었다.⁴¹⁾

40) 1942년 전시광산증산강조운동(42.9.1.-10.31) 기간에는 “우리들이 파내는 석탄과 광석도 전부가 병기다, 탄환이다”(■■■매일신보■■■, 1943. 9. 2일자)라는 구호와 함께 조선총독부 관료와 도지사를 동원하여 생산력 증강을 독려했다. (곽건홍, 앞의 책, 62쪽.) 한편, 증산주간의 활동 가운데 모범사례로 “日室鑛業開發株式會社 xx광산의 광석운반부 廣田德鳳은 1943년 4월 23일 입사한 이래 13개월 동안 하루도 결근, 지각없이 노동에 종사했다. 심지어 그는 5살 난 아이가 사망했을 때에도 근무했으며, 1943년 9-10월 2개월 동안 전개된 중요광물증산 기간에 먼지가 눈에 들어가 눈이 충혈되고 작업이 곤란한데도 6일간 평소의 2배에 해당하는 광석을 생산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곽건홍, 앞의 책, 224쪽.)

41) 이기영, 『광산촌』, 91쪽.

이와 같이 경쟁심을 통한 노동력 착취는 “주야 삼교대”로 이루어지며, “이 주간에는 비단 광산의 작업뿐이 아니라 그들의 사생활까지도 규범을 지켜서 자숙운동”(99쪽)을 할 것을 강요받게 되었다. 이처럼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노동력을 착취하고 개인의 사생활까지 규제하려 한 것은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황국근로관을 주입하려는데 목적이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리하여 주인공 형규는 “광부는 한갓 인부가 아니라 국가, 사회를 위한 훌륭한 생산자라는 점이고, 이런 생각을 할 때 자기의 하루 일이 조금도 고달픈 줄을 몰랐다.”(98쪽)고 하면서 전쟁 수행을 위해 자원을 개발한다는 사실에 “자부심과 긍지”를 느낀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의 이면에는 주인공 스스로 자기 자신을 충실한 황국신민의 하나로 인식하고 그것에 강한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주인공 형규는 마침내 나이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가운데 학식이 있고, 위인이 건설할 뿐만 아니라 국어에 능하고 두뇌가 명석하기 때문에 반장이 된다. 그런가 하면 광산촌 사람에게 야학을 통하여 “국어와 산술을 하루 밤에 두 시간씩”(101쪽) 배우게 하여 ‘심전개발’에 동참하게 한다.

한편 힘든 노동에 지친 광부들에게 위로회라는 이름으로 이동극단의 공연을 통하여 시국에 대한 인식과 노동자의 사명을 주입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가난한 노동자들은 25전하는 입장권을 사지 못하여 애를 태우고, 외상으로 입장권을 구입하는 형편이고 보면 광산이 생겨 마을에는 돈이 흔해졌다는 앞의 주장은 거짓임이 드러난다. 그리고 공연에 앞서 시국에 대한 선전을 통하여 노동자들의 의식을 세뇌시키는 것이다.

무대 위에서는 우렁찬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남녀 배우들이 제각금 변장을 하였는데 농민은 호미를 들고, 광부는 곡괭이 메고, 학생은 책을 들고, 어부는 다락길 들고 일렬로 느려서서 돌려가며 한 마디씩 힘차게 부르짖으면 일동이 따라서 외치는 것이었다. -(중략)-

■■■우리는 광산노동자다!■■■

■■■그렇다! 우리들은 직장에서 싸우는 산업전사다!■■■

■■■결전이다!■■■

『다같이 싸우자!■■■

■■■그렇다, 다같이 나가자!■■■⁴²⁾

위의 예문에서 보는 것처럼 예술 공연이 아니라 철저하게 일제의 국책을 선전하고, 선동하는 자리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동천홍■■■과 『광산촌』은 일제의 지하자원 개발 현장을 아무런 비판 없이 수용하면서 그것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선전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3. 대동아 공영권의 낙관적 전망

■■■동천홍■■■과 『광산촌』은 다같이 일제의 국책으로서 전시하 생산을 독려하려는 목적으로 쓰여진 총후문학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앞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동천홍■■■의 서사구조는 긍정적 주인공에 의하여 현실을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식민지 지배논리의 교화와 감화라는 구도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 같은 변질된 계몽성은 그 바탕에 시대적 고뇌라기 보다는 현실감이 결여된 체 문제적 인물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⁴³⁾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일훈에 의하여 전개되는 광산 내의 개혁은 정생원의 사주를 받은 몇 사람에게 의하여 도전을 받기도 하지만, 야나기(柳: 이전의 선옥)의 도움으로 그들의 음모가 사전에 탄로나게 되는데 이것이야말로 전화위복이 되어 이들에게 개과천선의 기회가 주어지고 대동단결의 계기로 작동하게 된다. 그리고 옥림광산은 일훈을 중심으로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된다. 그것은 모든 노동자들이 절주운동을 통해 일치단결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저축운동을 펼치며, 국어교육을 성실히 이수함으로써 황국근로관에 바탕한 완전한 황국신민으로서 자리하게 되는 것이다. 거기에는 일훈의 끝없는 동정심은 가난으로 인하여 술집으로 두 번이나 팔려간 금옥이(처음 팔려갔을 때는 선옥이고, 다음에는 산월이가 됨)를 자신의 돈으로 빚을 갚아주어 집으로 되돌려 보낸 사실에 보람을 느끼는 동시에 장래 국가를 위해

42) 이기영, 『광산촌』, 132쪽.

43) 권 유, 앞의 책, 161쪽.

유익한 인재로 기를 것을 다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의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자신을 따르던 창수와 의 대화에서 옥림광산에서 자신의 역할을 완수했음에 만족하고 “이제는 내가 없어도 당신들이 잘 해나갈 것”(364쪽)이라며, 건강이 회복되면 농촌으로 가서 교사가 되겠다고 다짐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교사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그것은 두말 할 것 없이 조선의 어린이로 하여금 일제의 국책에 따른 훌륭한 황국신민이 되도록 가르치는 일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일훈이 외롭게 병실을 지키고 있을 때 금남이가 병원으로 와서 혼자 있음을 알고 완쾌될 때까지 병구완을 할 것을 자청하게 되어 함께 지내면서 “천사와 같은 사랑을 그에게 느끼게”(372쪽) 된다. 그리하여 금남이를 훌륭한 사람으로 키울 것을 마음 속으로 다짐하는 것이다.

남이라 하여 상관없다고 그들의 천품을 썩여야 할까? 가석한 일이다. 후진을 지도할 의무는 선배에게 있다. 시대를 따라서 이 책임감은 군세여야 할 것이다. 개인으로도 힘이 미치는 데까지는 그들을 향도해야 할 것이 아니냐. 더욱 그것은 지금과 같은 비상시국에 그러하다. 한 사람이라도 훌륭한 인재를 만들어서 국가적으로 유용하게 쓰여야 할 판국이다.⁴⁴⁾

이처럼 주인공은 비상시국을 맞아 인재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세 세계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국책을 충실히 따라 그들의 궁극적 목표인 대동아 공영권이 확립될 것을 낙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작품의 마지막에 병원을 퇴원하는 날 금남이와 함께 아침햇살을 보면서 다음과 같이 감격한다.

그는 동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흰-하게 날이 밝아오며 동천이 붉으래 해진다. 장한 여명(黎明)이다.

아침놀에 물들어 가는 동쪽 하늘은 점점 더 붉은 빛을 더해 간다.

아니 그것은 놀이 아니다. 옥일(旭日)의 광휘(光輝)가 대계를 밝혀옴이었다.

이 새봄의 쾌청한 아침해는 만물에게 은총을 베풀기 위하여 또 한날의 통곡을 함이 아니냐? 일훈은 이 때 기분이 상쾌하였다. 갑자기 생명의 희열을 온 몸으로 느끼었다. 그는 새 희망이 가슴 속에 용솟음쳐 올랐다.⁴⁵⁾

44) 이기영, ■■■동천홍■■■, 375쪽.

이 작품의 표제가 되는 이 장면은 일제의 미래를 “육일의 광휘”로 표현하면서 그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으로 기우러져 있다. 이처럼 ■■■동천홍■■■에서 보여주는 작가의 현실인식이란 이미 그가 과거 프로작가로서 현실비판에 앞장섰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일제의 국책에 기대어 아지·프로(선동, 선전)하는 모습만 남아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묘사되는 세계에 대한 지배력이 상실되면, 작가는 그가 취택한 장면, 사건, 인물 등으로부터 압도적인 영향을 받게 되며, 나중에는 아주 동화되어 버리기까지 된다.”⁴⁵⁾ 임화의 지적처럼, 이기영도 일제말기라는 사회적 정황에 압도되어 자신의 이상을 사회정세와 맞추어 버린 것⁴⁷⁾에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일제의 지배 정책에 강한 신뢰성을 두고 이를 문학적으로 수용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일제의 국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아지·프로(선동·선전)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그가 과거 프로작가였음을 확인하게 해준다. 이처럼 ■■■동천홍■■■은 일제의 국책을 선전하기 위한 목적문학이었기 때문에 소설적 구성도 무시되고 있으며, 일훈과 금남이의 연애담이 위장된 휴머니즘으로 포장되어センチ멘탈리즘에 빠져 있기도 하다.

한편 『광산촌』에서는 일제 말기 지하자원 수탈에 대하여 대동아 공영권 건설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사업으로만 인식하고, 거기에 따른 노동자의 고통과 저렴한 임금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광산이 생김으로 하여 마을에 돈이 흔해지고, 여자들도 선광공으로 나가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생활이 여유로워졌다고 주장하는데 여자까지 광산노동에 끌어들인 일제의 노동수탈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은 일찍부터 한국의 지하자원에 대하여 치밀한 조사를 벌리고, 전쟁의 발발과 함께 금광 중심에서 희유원소광물로 관심을 돌리게 된 사정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종래는 금은광에 치중해 왔었는데 그것은 일시 황금전성시대를 만들게 하였다. 그러든게 금번 대동아 공영권 중요한 광산기지로 약진한 반도광업의 기초를

45) 이기영, ■■■동천홍■■■, 377-8쪽.

46) 임화, 『생산소설론』, ■■■인문평론■■■, 1940. 4 통권 7호

47) 권 유, 앞의 책, 159쪽.

쌓게되자 격렬한 과학 결전을 안 하면 아니 될 특수광물의 생산으로까지 우렁찬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다.⁴⁸⁾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일제의 지하자원 개발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방편이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갖은 방법으로 남녀 노동자를 광산에 끌어들여 저임금과 ‘증산주간’이란 이름으로 노동자 사이에 경쟁을 유도하여가면서 노동력을 착취한 사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전쟁에 대하여 예찬까지 서슴치 않는다.

전쟁은 파괴인 동시에 건설을 가져온다. 그것은 엄청난 소비인 동시에 또한 거대한 생산력을 갖게 한다. 따라서 전쟁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모든 국력은 진중하게 된다. 금차 대동아 전쟁과 같이 일억 국민의 총동원이다.⁴⁹⁾

일제의 대동아 공영권 위한 침략전쟁을 이처럼 미화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이는 일제말기 이기영의 문학적 궤적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점과 관련하여 권유는 “작가의 내면세계의 황폐화와 그것조차 토로하지 못하게 하는 일제의 ‘신체제문학론’의 억압적인 현실 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⁵⁰⁾이라고 하여 일제의 억압적 현실 탓으로 돌리고 있는가 하면, “식민지 현실 안에서 이기영이 추구하고 있었던 문학적 지향은 결국 자신이 살고 있었던 사회와 역사에 대응하기 위한 그 나름대로의 최대의 응전방식이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⁵¹⁾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러한 견해는 일제말기 이기영의 문학에 대한 관대함을 넘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을 모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기영은 이미 『신체제하의 여의 문학적 방침』에서 천명하고 있는 것처럼 이들 작품은 ‘신체제가 필요한 인간상’을 적극적으로 창조하려는 작가의 의식적 활동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광산촌』도 ■■■동천홍■■■과 마찬가지로 서사구조가 단순하고, 작가

48) 이기영, 『광산촌』, 32쪽.

49) 이기영, 『광산촌』, 97쪽.

50) 권 유, 앞의 책, 291쪽.

51) 권 유, 앞의 책, 298쪽.

서술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소설적 긴밀성이 약하다. 그런가 하면 주인공 형규와 마을 처녀 을남과의 연애담이 끼여들어 있으나 그것 역시 이념적 세계로 바뀌어지면서 마지막 결구에 이르러 을남의 기대와는 달리 아무런 약속도 없이 끝나버리는데, 이는 형규라는 인물을 통하여 대동아전쟁을 수행하는 총후 황국신민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IV. 결론

이상으로 일제말기 이기영에 의하여 쓰여진 광산소설 ■■■동천홍■■■과 『광산촌』을 살펴보았다. 그것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일제말기에 접어들면서 이기영은 자신의 문학적 태도를 밝히는 자리에서 “신체제에 대하여 공부한 후에 이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새 인간형을 창조하고 싶다.”고 작가적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인식의 연장선 위에 그의 일련의 체제순응 문학이 자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제는 1937년 중일 전쟁 이후 고도의 국방국가를 지향하면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통제와 함께 전쟁수행을 위한 국책을 전개한다. 그 가운데 하나가 군수물자를 생산하기 위하여 지하자원 개발이 급선무였다. 그리하여 <조선중요광물증산령>을 공포하는 한편 노동자들을 동원하기 위하여 <노무동원계획>을 수립하여 처음부터 치밀하게 노동력을 강제 동원했다. 또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일제는 정신교육을 동시에 실시하였으니, 그것이 이른바 ‘심전개발운동’이었으며, ‘一日一語’운동을 전개하여 일본어를 강요하였다. 그런가 하면 1941년 <조선국민저축조합령>을 공포하고, 저임금에 허덕이고 있는 노동자에게 강제저축을 통하여 노동이동을 막는 효과와 함께 군비조달을 효율적으로 조달하려 했다. 이처럼 노동자의 노동력과 함께 정신교육이라는 이중적 장치를 통하여 그들이 노리고 있었던 목표는 당면한 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함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내선일체’를 통한 대동아 공영권 건설을 당면한 국책으로 추진하려 했다. 그리하여 이 시기 문학 역시 일제의 국책을 효율적으로 국민에게 선전하기 위해 동원될 수밖에 없었다. 여기

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인물이 바로 이기영이었다.

이기영은 ■■■동천홍■■■과 『광산촌』을 통하여 일제의 지하자원 개발을 위하여 지식인의 노동자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당면한 국가시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억 국민이 총화 단결하여 산업전사로 참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노동의 고통이나 저임금의 문제는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생산만이 총후국민의 사명이라고 주장하기에 이른다. 그 결과 그는 당시 일제의 국책이었던 생산증대는 물론 ‘심전개발운동’으로 전개된 ‘일일일어’ 정책으로 일본어 보급 운동을 강요하고, 저축운동을 장려함으로써 국책을 완벽하게 소설로 형상화하기에 이른다. 그런가 하면 지하자원 개발이 전쟁수행을 위한 길임을 조금도 거리낌없이 강조하여 그가 의도적으로 일제의 국책을 선전하고, 전쟁의 당위성을 자랑스럽게 주장하게 된다. 이처럼 일제말기 이기영은 스스로 ‘황국신민’으로 순치된 작가의 정신적 허약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주제어 : Ki-Young Lee(이기영), Dong Chun Hong(東天紅), A Miners Village(鑛山村), A Novel of mining(鑛山小說), A novel of production (生産小說)

참고 문헌

- 곽건홍, ■■■일제의 노동정책과 조선노동자■■■, 신서원, 2001.
 권 유, ■■■민촌 이기영의 작가세계■■■, 국학자료원, 2002.
 김문식, ■■■일제의 경제침탈사■■■, 민중서관, 1971.
 박기주, 『1930년대 조선광공업의 기계화와 근로관리 통제』, ■■■경제사학■■■, 제26호, 경제사학회, 1999. (3-37쪽)
 신희교, ■■■일제말기소설연구■■■, 국학자료원, 1996.
 유종호, ■■■문학과 정치■■■, 민음사, 1980.

- 이기영, 『신체제하의 여의 문학활동방침』, ■■■삼천리■■■, 1941.
- 이항재, ■■■소설의 정치학■■■, 문원출판사, 1999.
- 임종국, ■■■친일문학론■■■, 평화출판사, 1966.
- 전석담(김인호 역), ■■■근대 조선 경제의 진로■■■, 아세아문화사, 2000.
- 조진기, 『만주개척민소설연구』, ■■■우리말글■■■ 제26집, 2002. (387-421쪽)
- 최유리, ■■■일제말기 식민지 지배정책연구■■■, 국학자료원, 1997.
- 三好行雄(편), ■■■近代文學史必攜■■■, 學燈社, 1989,
- 尾崎秀樹, ■■■近代文學の傷痕■■■, 岩波書店, 1991.
- 日本近代文學館, ■■■日本近代文學大事典■■■, 講談社, 1974.
- 佐藤靜夫, ■■■昭和文學の光と影■■■, 大月書店, 1989.
- 平野 謙, ■■■昭和文學史■■■, 筑摩書房, 昭和57.
- 紅野敏郎, ■■■昭和の文學■■■, 有斐閣, 昭和55.
- R 윌리엄스(이일환역), ■■■이념과 문학■■■, 문학과 지성사, 1982.
- 페터 지마(서영상 역), ■■■소설과 이데올로기■■■, 문예출판사, 1997.

※ 이 논문은 2003년 10월 30일 투고 완료되어 2003년 11월 22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03년 11월 29일까지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